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
	<b>배포일시</b>	<b>2018. 9. 4.(화) 총 3매(본문 2)</b>
<b>담당 부서</b>	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	<b>담당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박대순, 사무관 이양구</li> <li>• ☎ (044)201-4551</li> </ul>
<b>보 도 일 시</b>	2018년 9월 5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4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국토부 · 남해군 · 하동군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밑그림 그린다

### ‘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’ 공동 발주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경남 남해군, 하동군과 공동으로 ‘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’을 추진한다.
-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 사이의 노량해협을 잇는 남해대교는 국내 최초의 현수교\*로서 1973년 6월 1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약 45년 동안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왔다.
  - \* 현수교: 앵커와 양 교각 사이를 가로지르는 메인 케이블에 여러 개의 보조 케이블을 연결하여 상판을 매어단 교량
  - \* 사장교: 주탑에서 케이블로 교량을 직접 연결하는 형태의 교량
- 그러나 남해대교의 노후화와 늘어난 교통수요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 건설 중인 노량대교가 오는 9월 12일 준공되면, 남해대교 및 기존 국도 19호선 구간은 국도에서 폐지되어 지자체로 이관될 예정이다.
- 이에 국토교통부와 경남 남해군, 하동군은 남해대교와 교량 양측 지역을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‘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’을 공동 발주하기로 합의했다.

-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는 사업 여건 조사·분석, 주탑·상판 등을 활용한 관광시설 계획, 교량 양안의 개발계획,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이 포함된다.
  -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까지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후,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,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〈남해대교 시설 현황〉

- 위 치 : 경남 하동군 금남면 ~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
- 제 원 : 연장 L= 660m, 폭원 B=12m(2차로), 설계하중 DB-18
- 구조형식 : 3경간 강상판 현수교, H형 강재주탑(H = 60m)
- 준 공 일 : 1973. 06. 01      · 유지관리비용 : 연 5억원 내외



교량 측면



교량 하부